



Index

2면 특집 /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
간사 이동수 교수 인터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 발족

3면 인터뷰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4면 NEWS

임강원 교수 정년 퇴임 / 보직변경
단행 / 우수연구상 이정전교수 · 우수
강의상 이희연 교수

5면 환경대학원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식 /
외국인 입학생 인터뷰

6면 환경대학원

대학·연구도시 관악 프로젝트 /
강동구 포럼 개최 / 교수소식

7면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

CEO지속가능경영포럼 8기 출범 /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7기
수료식

8면 언론에 소개된 교수 칼럼

김기호 환경대학원 원장 /
김형국 명예 교수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상반기에 설립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AIEES : 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 Sustainability) 설립을 위한 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가칭)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싱크탱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다학제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연구 구현을 위해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다.

상반기에 지속가능연구원 현판식 갖고 9월말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은 환경, 에너지, 경제, 사회, 생태, 도시, 교통,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축터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연대, 공대, 농생대, 사회과학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게 되며, 더 나아가 외부기관

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된다. 김기호 환경대학원 원장은 이미 서울대학교 본부로부터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설립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지원금도 받았으며, 지난 해 말에 구성된 환경대학원 TF팀이 현재 설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제반 준비를 하고 있어 아마도 상반기내에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현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9월말 경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인 지속가능연구센터의 디렉터와 교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속가능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속가능연구원 운영에 대한 토론과 이들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본부 지원금의 일부는 태안기름 유출 사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지원되고 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이 설립되고 나면 아마도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공식적인 연구과제가 될 태안 프로젝트는 현재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

염 연구회 (위원장 고철환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발족되어 4개의 연구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회의 연구진에는 환경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대 내에서 다학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라는 데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위촉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설립을 위해 대외적인 차원에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발전기금 확보 및 연구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될 발전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연구원 설립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이 위촉되었고, 앞으로 12명의 발전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본격적인 설립지원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3면](#)

환경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환경대학원 총동창회가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 JW메리어트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사업 계획 및 회장단 취임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대학원 측은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 취임에 대해 동문 및 교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고 있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참석 여부는 동창회 사무국에 알리면 된다.

▶ 김민희 총동창회 사무장 :
02)880-5669 / 02)871-8847 (fax)



태안 회복을 위해 힘모은 서울대 교수들 서울대 허베이 스트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태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이 연구회는 태안 사고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발족됐으며, 태안에 조기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관련기사 2면](#)

Interview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 간사 이동수 교수

“다양한 전공 서울대 교수 40여명 자발적 참가”



태안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내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가 설립됐다. 이 연구회의 간사를 맡은 이동수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 연구회의 설립 배경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가 설립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태안 유류 오염사태가 발생한 후 서울대 많은 교수님들이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은 물론 자연과학대, 공과대, 농업과학대, 법대, 사회과학대 등 40여명의 교수님들이 모

여 태안 유류오염 사고 해결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힘을 합쳤습니다.

이 연구회가 지속가능연구를 지향한 다학제간 연구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대학기관의 협력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태안 유류오염사고를 보며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사고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사고지역의 환경 오염만, 의학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만 연구하고 학제간의 연구 교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과 경제, 사회 등은 따로 떨어져 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아우러져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안 사고를 통해 보여진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관리 능력은 어떤가요.

환경 위기관리 능력은 사고 범위와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건·사고

를 대비해 준비 체계는 물론 관련법안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서도 활용하는 연습이 부족했던 까닭에 태안 사고 때 잘 활용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태안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겉으로 드러난 오염 지역은 대부분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벽, 해안 등의 지역은 여전히 검은 기름 범벅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굵은 기름이 녹아 흘러 2차 바다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복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긴 인내심을 가지고 태안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태안의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길게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벌써 태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음은 물론 언론에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태안 사고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태안 워크숍 개최

지난 2월 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국내·국제 대응현황에 관한 워크숍'이 환경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가 주관한 것으로 서울대 교수는 물론 타대학 교수, 관심있는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진행됐다.

서울대 의과대 홍윤철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한 워크숍은 4명의 발표자가 나서 태안의 유류오염방제, 모니터링, 피해보상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이문진 박사는 "씨프린스호 사고와 정양호 사고를 통해 유출을 확산에 즉 및 모니터링 기술, 국가 방제 실행계획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대비했지만 태안 사고에서는 많은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세계적으로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울대도 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을 올해 설립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태안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대 내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 발족

태안 사고를 서울대가 앞장서야 할 사회적 통상 사건으로 규정 짓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들이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연구를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름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와 환경피괴의 심각성,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환경·공학·행정·의료 등 전반적인 국가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자연과학대학 고철환 교수를 비롯 환경대학원 이동수·윤순진 교수,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 사회과학대학 이재열 교수 등 40여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과 범위를 논의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대 본부측으로부터 사회경제조사에 관한 연구비 일부가 지원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향후 연구비 지원

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추진 중에 있는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을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연구회가 오염 지역의 환경복구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장기적인 방제 연구 등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사업

- 사회경제심리적 영향 연구
- 해안생태계 영향 및 복원연구
- 건강 영향 연구
- 유류오염방제 수준의 사회적 협의방안 연구

日 홋카이도대와 공동심포지엄

올해 10회째를 맞는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심포지엄이 8개 분과로 나눠져 1월25일 개최됐다. '태안생태계 회복'을 주제로 열린 분과는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진행됐다. 김기호 원장의 환영사와 토시오 이와쿠마 교수의 답례사를 시작으로 각 대학 교수들의 생태계 회복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중심 사례로 오염된 해안의 효과적인 오일 정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는 히데토시 오쿠야마 교수, 준 오노 교수 및 레이아 호스카와 박사가 발표 했으며, 서울대에서는 생명과학부 이은주 교수, 지구환경과학 고철환 교수가 발표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성장·기여 동시 추구해야 기업 지속가능”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이 아시아 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를 통해 유통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이 사장은 리더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실적의 '숫자'가 아니라 '문화와 시스템의 리더십 유산'이라고 강조한다. 이승한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서울대 차원에서 추진중인 아시아 지속가능연구원의 발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삼성테스코의 기업문화가 지속가능경영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도시공학에 관심이 많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만일 CEO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국도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00일 창의 서울 추진본부' 총괄 책임 이후 작년 1월부터 '창의서울 포럼'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지요. 삼성테스코의 CEO를 맡기 전 삼성 그룹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삼성 근무시 최초로 국가사회간접자본 법안 형성 시 민간기업 대표로 참석해 삼성의 11개 컨소시엄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영종국제자유무역도시, 한남동 리움미술관 등)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사회·문화, 환경을 균형 있게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관심,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이 위원장을 요청 받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부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경영이란 무엇인지요.

이제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이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뤄야 하지요. 21세기 지구촌을 움직일 새로운 경쟁력 방식이 바로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UN과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제도와 정책과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국은 환경지속성지수(ESI)가 120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GE의 CEO인 Jeffrey Immelt는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한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은 '성장'과 함께 '기여'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삼성테스코도 이에 환경, 나눔, 문화를 바탕으로 기여문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영 요소이며, 이 활동에 지출되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단기간의 성장 추진을 위

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직원들의 자신감, 창조정신, 긍정적 생각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테스코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삼성테스코의 환경경영도 사회공헌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은 인류 존망의 전제 조건이며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봅니다.

환경은 비용이 아닌 기회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입니다. 삼성테스코의 환경경영은 포커스를 어린이에게 맞춰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개점할 때 마다 'e파란 어린이 환경 실천단'을 만들어 환경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7천여명의 어린이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매년 e파란 환경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지요. 작년에는 총 2만 5천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올해는 2만 7천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뿐 아니라 2만 7천여명의 가족이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파급 효과가 무척 크다고 봅니다.

유통업체는 환경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물류서비스센터의 에너지 감소, 운송차량 운행 감소, 점포의 폐기물 재활용 등 생각해 보면 유통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활동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윤창출에는 마이너스가 아닌지요.

단기적으로 볼 때 이익에 마이너스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백년대계의 바탕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홈플러스의 창업자이며 초대 CEO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존경 받는 기업이 돼야 브랜드 가치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됩니다.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CEO들도 있지만 이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다시 적자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기실적을 올리고 부채를 갚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문화와 시스템으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을 수료하면서 서울대와 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수료 후 환경대학원에서 홈플러스의 '환경경영'·'창조경영' 등을 강의했으며, 2008년에는 CEO지속가능경영자포럼의 주임교수로 초빙돼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뜻하지 않게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의 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의뢰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은 환경대학원에서 설립 추진을 하지만 서울대 차원에서 설립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기업과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 환경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연구원을 통해 사회 리더들에게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불씨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씨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쳐 인류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학 대가 임강원 교수 명예로운 정년 퇴임



한국 교통학을 대표하는 임강원 교수가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맞아 지난 2월말 정든 서울대 교단을 떠났다. 임교수는 지난 1977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부임해 33년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으며 교통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임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Cornell University에

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교수는 학내활동 외에도 대한교통학회회장, 세계은행 위촉 천진시 도시개발전문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저술활동도 활발히해 '교통망 분석론', '21세기 교통 전망·비전과 전략', '새천년의 환경과 국토' 등을 출간했다. 지난 2월 29일 임강원 교수 퇴임식에는 김기호 환경대학원장과 환경대학 후

임강원 교수 프로필	
◀ 학력 ▶	196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사 197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석사 1974 미국 코넬대학교 공학박사
◀ 경력 ▶	1977~2008.2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989~1991 한태평양지역 도시개발학회 부회장 1989~1993 대한교통학회 회장 1998~1999 세계은행위촉 천진시 도시개발전문관 1998~200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2007 국무총리실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배교수, 학내외 인사들, 그리고 많은 후학 및 제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3월 5일에는 호암교수회관에서 환경대학원 주최로 임강원 교수의 퇴임 기념 강연이 열렸다. 임교수의 마지막 강연을 청강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통관련 전문가 및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교수정년식에서 임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제적 수준 강의실로 탈바꿈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103호 강의실이 첨단 설비를 갖춘 국제적인 수준의 대형 강의실로 새롭게 단장한다. 환경대학원은 그동안 대형 강의실이 없어 국내·외 회의 개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환경계획 및 설계 등 대형 강의시 좌석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대학원은 서울대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103호 강의실의 계단식 좌석과 강의실 내벽면을 일부 변경하여 부족한 좌석을 확충하고 첨단설비를 갖춘 강의실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취약한 냉·난방과 소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321호 전사실도 새단장을 했다. 열악한 학습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한 도시·환경 최고 전문가과정 4·5·6기 fellow들이 발전기금을 출연해 쾌적한 전사실로 리모델링하여 수업과 세미나 등 다양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수연구상 이정전 교수 · 우수강의상 이희연 교수



이정전 교수



이희연 교수

서울대학교는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포상하고, 수상교수들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우수연구상 수상자로 이정전 교수가, 우수강의상 수상자로 이희연 교수가 선정됐다. 서울대는 수상자에게는 해외파견시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연구상' 수상자에게는 학장의 추천 및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강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대학원 부원장 최막중 교수 임명



최막중 교수 (환경대학원 부원장)



조경진 교수 (환경조경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보직 변경이 3월 1일 실시됐다. 신임 부원장에 최막중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병이 교수 (CEO자속기능영역과)

가 취임했으며 환경조경학과에는 조경진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양병이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의 'CEO지속가능 경영포럼' 주임 교수를 맡아 4월부터 포럼을 운영한다.

졸/업/생	
"졸업을 축하합니다"	
석사학위논문합격자 (가나다순)	
환경계획학과	
권은선 김중태 김희선 배상복 윤순현 이정택 최용식	김영환 김하나 박순희 배승철 이요급 이정환 하연정
김다아 김현준 박재철 변수환 이유진 정문수 황성태	김 석 김형민 박철현 소현정 이정우 정은영
김영석 김형석 박형준 송예정 이정철 조제우	
조경학과	
강아람 구길보 김태완 김현석 박경은 박선희 배소연	이재희 조성화 진화연
박사학위논문합격자	
환경계획학과	
김주진 박상준 성주인 양승철 오미영	
조경학과	
김윤규 박미영 박은영 정 휘	

입/학/생	
"입학을 환영합니다"	
석 사 (가나다순)	
환경계획학과	
강아람 김민주 김윤지 김희정 박동하 송남화 안승혁 유영택 이현수 장효석 홍경선	김영은 김민지 김은화 남영근 박성준 송재윤 양희진 이도환 임두리 정인영 홍은성
고지선 김민희 김경희 노재은 박영호 신유경 오광교 이은환 임현섭 최윤경 황은성	권요연 김예지 김준호 문준호 배지철 심재인 오현상 이정영 장상우 현정원 김영남
조경학과	
김도영 김순기 김윤경 노수빈 박미선 박영룡 박재정 배호정 성혜정 손정일 신서경	우동길 우장범 윤혜영 이상부 이소영 이조원 이현덕 이형섭 전해선 정희경 조민경
조화영 황동호 리보	
박 사	
환경계획학과	
김경신 박년배 박상우 박현영 배진경 서일원 성홍모 송지혜 이재연 장현호 전우훈	최정선 한은정 소하일
협동과정 조경학	
강연주 김승현 박중훈 서영애 유가현 윤희재 장성완 조우현 황주영	

환경대학원 07학년도 졸업식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7학년도 졸업식이 지난 2월 26일 환경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환경계획학과 수석 김형민, 조경학과 수석 조성화씨를 포함하여 석사 44명, 박사 9명에 대한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김기호 환경대학원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모두 열정과 꿈을 갖고 국내는 물론 세계의 무한 경쟁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식 열려



2008학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식이 지난 3월 3일 환경대학원 306호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환경대학원 최막중 부원장의 학사보고로 시작해 김기호 원장의 입학식사로 이어졌다. 최병선 환경대학원 동창회장도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원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대학원은

지난 과거동안의 생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전문기적 지식과 품격을 쌓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춘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영역 간에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적 지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병선 동창회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 보존과 창조에 중요한 역할이 되어줬을 좋겠다”고 당부했다.

학과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서울대 환경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월 20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열렸다.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 50여명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은 이희연 교수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교수는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공공의 차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 환경을 위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키워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로 나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특히 환경조경학과는 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환경계획학과 석사 신입생 김영남 (중국)

환경계획학과 박사 신입생 Sohail Ahmad (인도)

“한국의 도시계획은 중국의 미래상”



유학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택한 이유는?

지금 중국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 10~2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즉, 한국의 도시 발전도 처음에는 난개발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환경과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의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도시 환경의 발전 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현재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환경계획에 도움을 주고 싶다.

조경학과에서 환경계획학과로 전공을 변경한 이유는?

한국에 올 때는 조경학과만 알고 있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공간 생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조경학과를 전공하면 된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연히 북경올림픽 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 무차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나서 이대로 중국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환경을 쾌적하고 좋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공간을 아름답게만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전공도 환경계획학과로 바꿨다.

서울대에서 외국인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서울대에서는 아직 외국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주변 친구들과 중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과 공부 방법들을 몰라 방황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 도중에 포기한 친구들도 있다. 외국인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부족하다고 본다. 물론, 외국인 학생들도 외국인이니깐 배려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졸업 후 생각하는 진로는?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도시발전단계에서 우위에 있다. 중국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한국의 발전 단계와 현재의 한국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몇 년의 실무경험 바탕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

“인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환경계획 공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지원한 동기는?

When I was in the Master's Program, I got an opportunity to visit Korea under 'Mutual Friendship Program' and at that time I visited almost all parts of Korea. , during the trip, I was much impressed by the human settlement not only in urban but in rural settings as well. It also provided me insight of Korea's socio-economic base, its diverse culture and high standard of education and above all, its bias towards research & development. This, among many other things, was the main reason why I selected Korea as a destination for pursuing a study.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was obviously my first option for graduate study due to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of curriculum. It provides more autonomy in selection of courses, in other words, it gives an opportunity of self design curriculum.

환경대학원 졸업 후에 꿈꾸는 계획이 있다면?

I would like to actively participate in shaping fast growing urban India in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 development on emerging urban issues. I wish to start my career in mixed blend of academics and research & development, either in a university or in a planning firm.

마지막으로 환경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I wish GSES would offer more classes either in English language (at present only two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or in mixed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so that it would be beneficial to both local and foreign students. This would not only be advantageous to students like me but also leads toward more internationalization. The English version of GSES website should be update with equal input to its counterpart Korean version of website. The website is not only a medium of communication among administration, students and professionals but also a gateway to GSES for the English speak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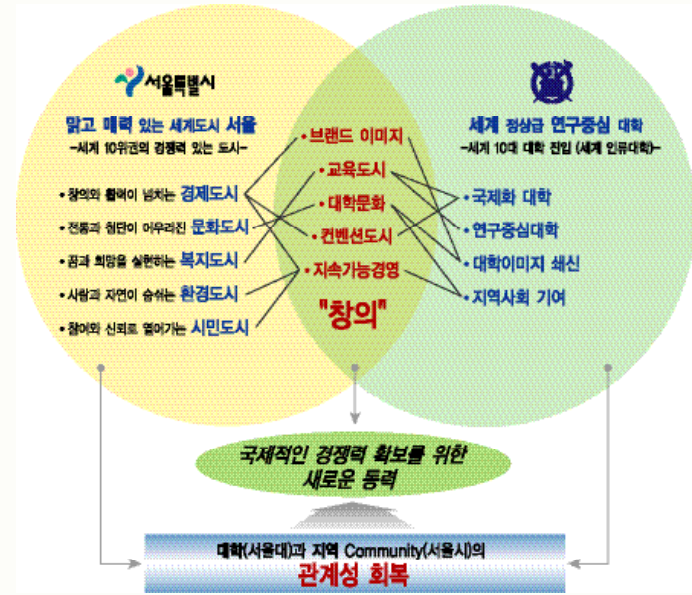
'대학·연구도시 관악'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관악구와의 연구 협약을 바탕으로 관악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기비전 전략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2005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관악구가 체결한 '연구교류 협약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관악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2020년 관악구의 장기비전 계획 수립 과제를 중점으로 연구하며 특히 '대학·연구도시(UniverCity) 관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연구도시 관악이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서울대와 관악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악구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대학원과 관악구는 이를 위해 서울대의 우수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등을 모색하며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해 교육연구 관련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연구



도시 관악을 핵심전략과제로 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팀(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설계, 조정

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 등)을 조직했으며 관악구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연구팀은 그 동안 진행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4월 초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연구'란 주제로 중간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대-강동구, 지속가능발전 도시환경 포럼



지난 1월 23일 '강동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포럼'이 강동구청에서 열렸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기호 원장을 비롯하여 7명의 교수들과 20명의 연구진, 최홍호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강동구의회 의장, 구의원, 지역 주민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대학원과 강동구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난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미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강동구 주민조사

▲강동구 그린웨이 구상 ▲천호대로 개선방향 ▲도시마케팅 및 업그레이드 전략 ▲장기적 구정전망 및 정책과제 등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대학원 김광중 교수가 총책임을 맡아 7명의 교수와 함께 강동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 미래상을 제시해주었다. 강동구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호 원장은 이날 "이제 도시 발전은 문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강동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강동구에게 가장 알맞은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동구와 좀더 창의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강동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동구와의 교류 협약에 따른 1차년도 연구는 2월에 '2007 강동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연구' 보고서 출간을 통해 마무리 됐다. 3월부터 2차년도 과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8년 협약의 핵심연구주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그린웨이 장기구상을 바탕으로 하는 '강동구 생활권 그린웨이 마스터플랜'으로 설정했다. 주요 그린웨이 경로 중 선사로에 대해서는 강동구의 상징로, 축제문화거리로 가꿀 수 있는 가로환경 디자인을 제안하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재구축하여 그린웨이 계획에 반영하고, 동시에 보행 중심의 가로로 바꾸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구상하여 생활권 그린웨이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전체 교수님이 협약연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김기호교수, 김성수교수, 조경진 교수가 부문별 책임교수로 참여한다.

교수소식 (가나다 순)

김광중, 최상철 교수는 3월 7일~8일 동경대의 초청으로 세계 거대도시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수, 이영인, 임강원 교수는 2월 22일~23일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열린 '대한국회 제 58회 학술발표회'에 참가해 강연했다.

김정욱 교수는 2월 19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생태귀농학교에서 '생태위기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귀농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강의했다.

김형국, 전상인 교수는 2월 15일 '배움과 한국인의 삶' (나남) 책을 출판했다.

박종화 교수는 2월 13일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100대 자연 휴(休) 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다.

성종상 교수는 1월 22일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숲길가꾸기 위원으로 참여해 숲길 보전사업 및 생태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양병이 교수는 2월 22일 일산컨벤스에서 열린 (사)한국인공지반족화협회 정기총회 및 한일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윤순진 교수는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후변화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진 교수는 1월 31일 '우리는 행복한가' (한길사) 책을 출판했다.

황기원 교수는 2월 1일 조선왕릉(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커리큘럼 확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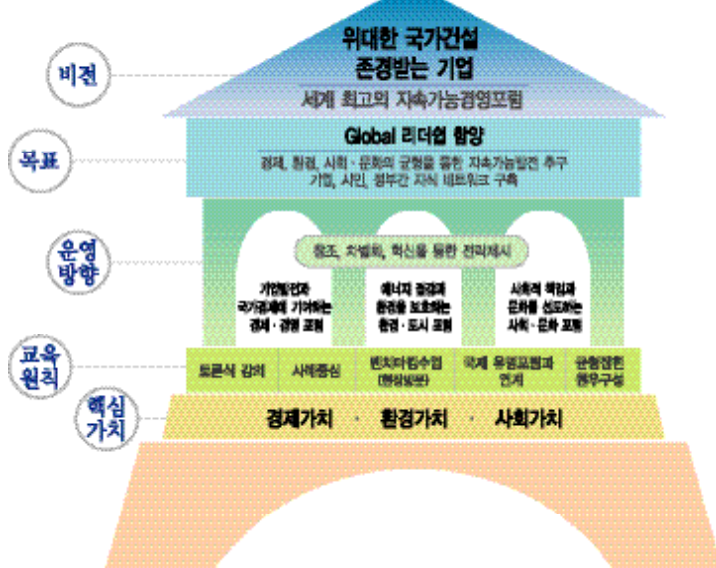
민간, 정부, 학계 등 각 부문 최고경영자와 리더들이 참여하는 ‘CEO지속가능경영포럼’ 8기가 4월 15일 출범한다. 이 포럼은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 친환경정부 실현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기부터는 환경 중심의 커리큘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 경제·경영, 사회·문화, 인문·교양, 환경·도시 등의 내용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 포럼의 교육은 토론식강의와 사례중심, 현장방문을 통한 벤치마킹수업, 국제 유명포럼과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 세션의 경우 유명강사를 통해 중요사례를 공유, 토론하고 기업과 시민단체·언론·정부 등의 멀티섹션 접근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강연은 공동관심사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책결정자외의 토론과 대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게 된다. 벤치마킹 수업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 기업과 도시를 방문해 세계 초일류 전략을 적용하도록 한다. 효과 면에서 기업 부문의 CEO들은 국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및 경쟁을 이해하고 성장하

VISION HOUSE



는 기업을 넘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지속할수 있는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사회부문의 CEO는 기업 시민 정부간의 가버넌스 협력체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마련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 CEO는 위대한 국가건설이란 비전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실용적 측면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대학원 양병이 교

수와 삼성테스코 이성한 시장은 공동 주임교수를 맡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호 환경대학원 원장, 남중수 KT 대표, 남승우 풀무원 대표,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최고 권위자들은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가능경영포럼을 수료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는 이번 포럼 강연자들을 비롯 정몽준 국회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 최열 환경재단대표,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있다.

커리큘럼

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경제·경영 포럼

시장경제 :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국토·도시 경쟁력(최마중 서울대 교수) / 중국의 경제비교와 한국의 전략경영(서울대 교수)

기업경영 : 잡지는 창의를 깨워라(이승환 삼성테스코 사장 겸 공동 주임교수) / 지속가능경영의 개요(조동성 서울대 교수) / 지식기반 경제하의 전략경영(송재용 서울대 교수) / 디자인 경영, 글로벌 경쟁의 돌파구 (정경원 KAIST 교수) / CEO의 리더십 이슈(신태균 삼성인력개발원 상무)

사회적 책임과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문화 포럼

사회적책임 :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사례연구(남중수 KT 대표)

문화경영 : 창의문화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오세훈 시장) / 시민의식 개혁 -희망한국을 디자인한다(박원순 변호사)

에너지 절감과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도시 포럼

환경경영 : 21C 메가트렌드와 지속가능경영(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풀무원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남승우 풀무원 대표) / 환경문제 진단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김정욱 서울대 교수) /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이기섭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

도시환경 :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김기호 환경대학원장)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양병이 공동주임 교수) / 도시디자인(권영길 서울대 교수)

인문학적 소양과 교양을 기르기 위한 인문·교양 포럼

인문/예술/건강 : 칸트의 이성비판과 현대인의 이성(백종현 서울대 교수) / Well-being과 현대인의 신 건강법(이시영 의학박사)

국내외 벤치마킹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Best Practice 방문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7기 수료식 열려



환경대학원 제7기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학생들의 수료식이 3월 2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34명의 수료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교수와 가족 등 약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SGS 8월 해외 답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SGS) 동창회는 8월 7일부터 10박 11일간 해외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의 주제는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교차로 인한 역사문화도시 비교’로 스페인 안달루시아를 비롯하여 지브롤터, 모로코 등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답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마중 부원장의 인솔로 진행된다. 답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배 조교와 김민희 사무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 답사 문의
 김 배 조교 : 02)880-8525
 김민희 사무장 : 02)880-5669

세계일보 칼럼



김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교수들은 기름유출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선 투표를 새벽에 마치고 곧바로 태안으로 내려갔다.

기름유출현장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래를 한 움큼만 파면 보이는 기름층은 이미 모래에서 생명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어 보였다. 더욱이 직접 만나본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상실감, 절망감과 배신감 속에서 생기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기름유출현장 방문단은 지난해 12월 현장조사 이후 태안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앙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지

역사회를 돕고자 하였고,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국가적인 대재앙에 대하여 대학사회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검소하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교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고 있다. 이번 서해안 생태환경과피해 문제와 복원 문제를 지금까지의 단계적인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제거, 생태학, 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이젠 '환경·해양 시대'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했던 엑손 발데즈 기름유출사건의 현재 상황을 돌아볼 때, 서해안의 이번 기름유출 때문에 발생한 생태계 파괴, 지역사회·경제파괴 등이 회복되는 데는 아마도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현재 추진 중인 '(가칭)아시아지속가능연구소'의 파일럿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가칭)서해안 생태환경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 부소로

서 생태계 복원 문제, 지역경제 회복 문제,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비영리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우선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추후에 주민, 공공부문, 그리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 같은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지역의 커뮤니티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또 다른 차원의 생태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들이 서해안에서 오염물질 제거, 생태계복원 문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회복 문제, 유조선으로부터 기름유출 방지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그 결과물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현재 울부짖고 있는 주민들과 말도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월 6일자)

문화일보 칼럼



김형구 명예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짜통에 익숙한 눈에는 매사가 짜통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인수위의 '광역경제권'이 골자인 국토개발 구상이 노무현 정부 제2기 균형정책의 골자라는 '초광역경제권'을 '표절'했다고, 지난 5년간 국토정책을 주무른 책사가 "매우 화가 나 있다". 이제 막을 내리는 노 정부의 국토정책을 돌아켜보면, 그 기반 정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다. 병엄한 국내의 지정학도 외면한 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파기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란 결정타를 맞은 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상천외의 짜통으로 국토정책을 이끌어온 정부가 아니던가. 표절이건 말건 노 정부 구상이 이어지는 형국이라면 화낼 일은 결코 아

글로벌 경쟁력 좇는 '광역 국토정책'

니겠다. 지난해 여름, 정부 산하 공사들을 '강제 이주 시키는 혁신도시' 중 한 곳 경남 진주에서 '대못질' 기공식도 모자라 노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서든 퇴행적인,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노 정부식 균형개발정책이 폐기 내지 수정될까 염려한 말이었다. 표절이라면 내심 좋아해야 할 텐데도 책사가 몹시 화를 냈고,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거들었다면 사연이 있을 법하다. 필시 인수위 구상과 노 정부 국토정책 기초가 발생법에서 서로 다름을 논치 했기 때문이다. 관전자가 보기에도, 한마디로 노 정부의 것이 '순진한 이상론'이었다면 새 구상은 '냉철한 현실론'이란 차이다. 노 정부의 발생법은 국토불균형을 수도권 과밀 대 지방경제력 열세가 실체라고 파악한다. 과밀부분을 잘라주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향상되겠고, 자른 부분을 지방에다 이식하면 그 경쟁력을 돕는 일석이조(一石二鳥)효과로 국토 균형을 얻는다는 복안이었다.

날로 몸집이 커지는 초대형 도시는, 공룡이 몸집이 너무 커서 사라졌듯이, 자멸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이 시각은 지역개발 이론의 대표 정론으로 굳어진다. 한 칼에 두 문제를 해결한다니 그 아니 매력적인가. 균형 개발에 부심하는 나라마다 금과옥조로 삼았고, 노 정부 또한 이 발상법에 따라 행정도시·혁신도시를 추진했다. 그런데 세계화가 확산되자 '일석이조'식 발생법은 현실성 없는 시대착오로 판명난다.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나라마다 보유한 세계도시의 경쟁력과 함께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바와는 달리, 초대형 도시는 몸집이 더 불더라도 경쟁력의 저하는커녕 세계 경쟁의 참여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대안은 수도권 경쟁력의 자기 확대성을 더 이상 막지 않음이,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보호막으로 감쌀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지방은 권역별로 자생력을 확보·확대함이 현실적이라 파악한다. 특히 지방의 자

생력은 해당 권역별 기동감 대도시를 거점으로 활로 찾기를 기대하는 바,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지방 쪽 충청권은 대전, 호남권은 광주, 대경권은 대구, 동남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력을 키워 세계 경쟁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배정한 이면은 전자는 서울을, 후자는 여객기 연결편이 있는 내지(內地) 대도시들을 기동으로 삼으라는 암시일 것이다. 지난날은 도시 대 농촌의 불균형이었다면, 거대 도시국가가 된 오늘의 우리 사회는 "대도시지역 대 대도시 영향권에 들지 못한 지방"으로 양분된 불균형이 당면 현안이다. 대도시 영향권에 들지 못한 지방에 대한 시를 거는 정책이 제격이다. 기실, 균형의 도모에는 국토정책보다 경제사회정책이 더 효과·효율적이다. 공연히 시·도로 조각낸 통계만으로 불균형을 논단해선 안 된다. (1월 30일자)